

범례

- 산업 현장
- 엔지니어링 사이트
- 자회사
- 제련소
- 상업 시설

아르헨티나

르노 아르헨티나

활동:   

브라질

브라질 르노

활동:   

한국

르노삼성자동차

활동:   

모로코

탕헤르/소마카

활동:  

튀르키예

오야크 르노 튀르키예

활동:   

인도

RNTBCI-RNAIPL

활동: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클러스터

RRG 바르샤바

활동: 

이탈리아

르노 이탈리아

활동:  

슬로베니아

르노 레보즈

활동:   

루마니아

DACIA & RTR

활동:   

스페인

르노 스페인

활동:   

프랑스

르노 SAS + 자회사

활동:     

영국

르노 UK

활동:  

독일

르노 도이칠란트 AG

활동: 



르노 그룹 위원회

직원의 권리를 위해
대표하다, 보호하다, 행동하다



좀 더 자세한 문이나 의견 전달을 하려면

119, rue du Point du Jour,
92100 Boulogne-Billancourt - France

comite-groupe.renault@renault.com
+33(0)1 76 84 15 68

자세한 내용은 XXX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omitegrouperenault.com

2025년 10월

- 세계적 규모의 노사
- 대표의 핵심
- 참여자

르노 그룹 위원회(CGR)는 르노 그룹 내 노사간 대화를 위한 글로벌 기구입니다.

이 기관에는 르노가 설립된 14개국 출신 31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직원들을 균형 있게 대표합니다.

- 국경을 넘어서는 행동

CGR은 유럽과 전 세계에 걸쳐 르노 그룹이 설립된 모든 곳에서 직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합니다. IndustriALL Global Union과 IndustriALL Europe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높은 노사 관계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르노 그룹 위원회는 일상의 고용 계약을 뒷받침하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노동법 존중



노사간 대화에서의 윤리



기본적 노사 권리에 대한 존중



평등과 다양성 증진



직원 간의 연대



공정한 대우



자부심의 원천 : 직원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협정

CGR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르노 그룹 직원에게 유리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한 것입니다. 특히, 2013년에 체결된 첫 번째 글로벌 프레임워크 협정은 노사간,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 대한 공동의 참여 의지를 나타내며, 그룹의 모든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노사 권리에 대한 존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모든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CGR은 협상을 넘어, 그룹 경영진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직원들 의사 표현의 필수적인 채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GR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모든 르노 직원이 지위나 직장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일상의 고용 계약

CGR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협정 이행을 논의하고 모니터링하며 르노 그룹이 직면한 주요 노사간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정위원회
경영진과의 월례 회의

세계위원회
CGR의 모든 회원을 한자리에 모으는 연례 본회의

개입
CEE 프레임워크 내에서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조직 및 유럽 수준 기관 협의의 경우

연례 회의
현지 이해 관계자와 가능한 한 가까운 다양한 사이트에서

-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위원회

CGR은 르노 그룹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GR은 노사간 대화를 강화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직업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